

본문:약4:6-8

제목:큰 은혜를 받는 방법

6: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그런즉 너의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의
를 피하라

8: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잠3:34

34: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길을 취하여
하나님에 더 큰, 은혜를 받도록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되

오직 마귀에 대해서는 잠깐이라도, 타협하거나 ,화목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승리하는 방법은?

모든 죄악에서, 깨끗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자기를, 죄인으로 먼저 자기를, 성결하고 하고
손을 깨끗이 하듯, 죄를 버려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약4:6

6: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에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옴기의 저자는?

옴22:29

29: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예수님께서서도?

마23:12

12: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인간은, 자신에 능력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다.

인간은, 자신의 “빈곤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다가온다.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인생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이 교만할 때는,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 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양을, 자기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것같이 자칭 은혜받았다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교만하다가, 망신을 당하곤 합니다.

☺ 교만한 자는

고집하며, 누구의 지시도, 명령도,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거부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내립니다.

2.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약4:7

7: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 본문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마귀는 대적할 때, 도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부르고 매달리다가도

생활이, 안정되고 문제가, 없어지면 신앙생활을, “흐지부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에서 떠나 “에베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 마귀는 사람의 약점을, 잘 알므로

신앙이, 약해지거나 허점이, 생기면 그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탐욕을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이성의 유혹을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분쟁을 이용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케 하고, 교만케 하며, 반역케 하고,

정욕적인 삶에, 빠지게 하며, 원수, 맺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가깝이 가는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깝이 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 **항상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사탄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중에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3. 두 마음을 버리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약4:8

8: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을, 죄를 깨끗이 씻으라는, 말씀이고,
두 마음이란, 선과, 악, 주님과 세상,
하나님과,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속담에**

한 나라에, 두 임금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이어야 합니다.

백성 된 자가, 마땅히 한 임금을 섬기고

아내 된 자가 마땅히, 한 “지아비를” 섬겨야 합니다.

말씀과 같이

약1:8

8: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방황하는 자며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교회와, 세상, 의와 불의, 영과 육 사이에, 쳐해 있으나

☺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세상을 버리고, 교회 편에,

불의를 버리고, 정의 편에,

육을 버리고, 영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인, 마음을 품은 자를 가장, 불결하게 여기십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에, 애착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반면에, 한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는 크게 사랑하십니다.

사26:3

3: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